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존제)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8월은 성탄의 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날

〈성탄절 8. 12〉

8월은 구세주 조희성 선생께서 탄생하신 달이다. 구세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8월을 맞이하여 선생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범하지 않았던 어린시절

선생은 1931년 8월 12일 경기도 김포에서 탄생하셨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랐다. 일제의 수탈로 모두 배를 굶는 시절에 양식을 축냈으니 그 대가로 나무를 해서 굶주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큰집에서 먹고 왔다고 양보한 후 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 물로 채우다가, 허기를 면하지 못하면 밤에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인 송이를 벗겨 먹으며 굶주림과 싸울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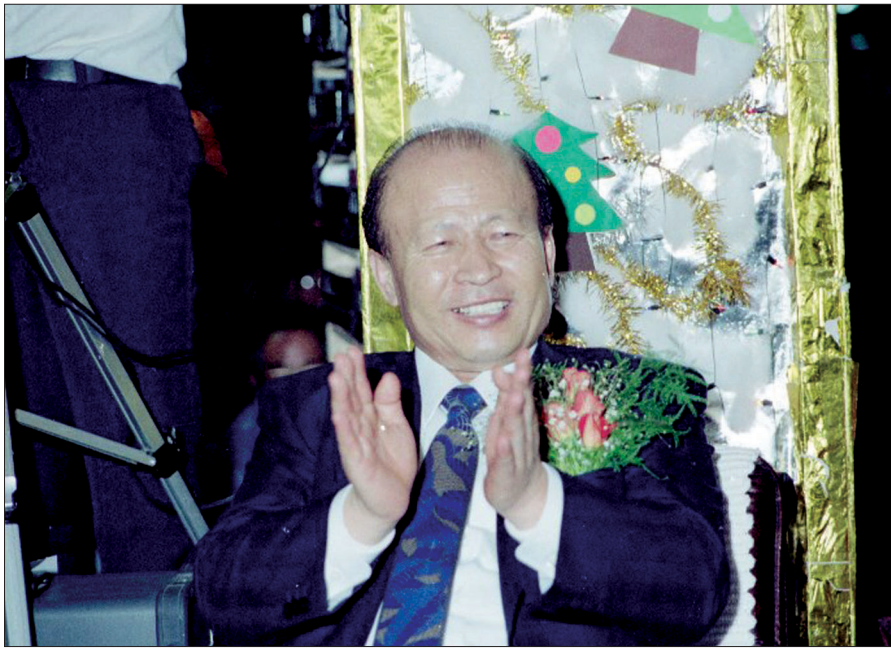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옆집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있는 양식을 몰래 그 집에 갖다 주고 왔으며, 부모님 몰래 집의 양식을 훔쳤으니 그 대가로 나무를 해서 장작을 만들어 읍내에 나가 팔아서 부모님에게 드릴 정도로 인성과 희생정신이 많은 성품이었다.

인류를 기필코 영생시키리라

선생이 영생을 찾게 된 데에는 동기가 있다. 선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음력 설날 밤도록 친구들과 놀고 돌아와 하룻밤을 자고 보니 간밤에 함께 놀았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이다. 선생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친구의 죽음은 선생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져 주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뒷동산 잔디는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데 한 번 죽은 내 친구는 왜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일까? 사람이 안 죽는 길은 없는가? 등등의 의문을 갖고 안 죽는 길을 찾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다. 그러면서 선생의 마음에는 꼭 인류를 영생시키려고 마다없는 사명이 굳건히 자리잡았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

선생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중학(당시는 고등학교 과정)이었고 5년제 중학이었다) 시절 웬만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다음 마귀를 이겨야 구세주가 된다

철학 서적을 다 읽었다. 하지만 어떤 철학서적에서도 죽음의 원인과 안 죽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죽은 뒤에 영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김포읍에 있는 장로교회를 나간다. 선생은 성경에서 핏값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을 발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며 노력한다. 더욱이 마음으로도 음란죄를 지으면 죄라는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 그 과정에서 열흘씩 금식기도는 밥 먹듯이 했고, 삼십 대 때에 30일씩 금식기도를 무려 14회 한다. 그것도 13번째는 자갈위에서, 14번째는 유리병을 깬 칼날같은 유리조각 위에 무릎 꿇고 30일 금식기도를 성공한다.

그러나 아무리 금식기도를 해도 죄와 상관없는 존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 연단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린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죄

하나님께서 선생을 소위 '밀실'이라는 곳으로 부르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해와인자가 된 홍업비 권사가 아담이긴자를 기르는 곳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이긴자로 걸러졌지만 선생이 오기까지는 아담이긴자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었다.

'밀실'의 홍권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홍권사는 선생에게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죄,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죄, 남에게 관심을 가져도 죄라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다 죄라는 것이다.

선생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한 해를 단념한다. 중노동하면 몸이 힘들어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다하여 중노동을 한다.

그러하여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자신을 죽이고 죽이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으로 거듭난 이긴자가 된

다. 조희성 선생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므로 부득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몸이란 죄의 몸이므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었다는 것은 죄를 뒤집어썼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죄(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하나님도 구원이요 인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마저도 구원이 되지 못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6000 년간 준비해 오던 모험을 감행하셨다. 인간의 몸을 쓰고 죄인이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마귀와 직접 싸워서 마귀를 이겨야만 인류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서는 인류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

1931년 8월 12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구원이라는 1차 목적과 더 나아가 인류 전체 구원이라는 2차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조희성이라는 사람의 몸을 입었던 것이다.

우리 인류는 인류 구원을 위해 감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그 사랑을 감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유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을 소원하셨던 구세주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신도라고 하겠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1)

“피의 원리, 마음의 원리, 마음먹는 대로 만물이 변한다”

마음먹는 데 따라 만물이 변한다.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하고, 피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변한다. 그러므로 피가 변함으로 굶어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진다.

정도령이 논하는 확률은 피의 원리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원리를 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피로 변한다고 논하는 것입니다. 피의 원리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차원 높은 확률이 되지

만 좀 더 올라가서 마음의 원리를 정도령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첨단과학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음에 있고, 하나님도 천국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도령은 마음의 원리, 마음의 과학을 논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과학, 신의 과학을 논하고 있는데 이것만 바로 깨닫고 정도령이 논하는 그 마음을 품기만 품으면 문제없이 하나님이 꼭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하십시오!

구도의 길

인생의 산정(山頂)

한국산악사를 빛낸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세계 최고 히말라야 8천미터 16좌 완등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혈육 같은 동료들 산에서 잃기도 했다. 너무 고혹스러워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순간도 많았다. 생사의 경계선을 수없이 넘나들며 마침내, 그는 꿈에 그리던 목표를 이루었다. 그가 어떤 언론기관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이제 내 인생의 산에 도전하고 싶어요! 모든 시련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진짜 엄홍길 인생의 산정의 정복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였다.

과연,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의 정상일까?

우리를 대다수는 진짜 인생의 정상을 오르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가짜 인생의 정상(頂上)을 정복하느라 일생을 허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의 1부 능선에, 어떤 사람은 달콤한 사랑의 2부 능선에, 어떤 사람은 무소불위의 권력의 3부 능선에, 어떤 사람은 영예로운 명예의 4부 능선에 안주하며 마치 인생의 정상인양 착각하며 살고 있다.

인생의 정상이란 두 말 할 것 없이 인간의 행복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하기 위

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정의는 저마다 다르다. 그것은 참다운 행복의 정의가 한 번도 존재해 본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여기! 인생의 진짜 산 정상을 오른 구세주인 조희성님이 말씀하신다. "인생의 행복이란 자신 속의 태산과 같은 험준한 정복의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인생의 참 행복이 되는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시공을 초월한 자유를 누리며, 전지전능한 능력을 맘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정상에 설 수 있게 된다"고 말이다.

대부분 인간은 산정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구경하지 못하고 산 끝이 굽이 능선 아래서 우왕좌왕하며 이슬처럼 왔다가 사라져 죽어가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행복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너무나 험하고 멀다. 그 길은 자기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이다. 오직 산정에 올라 본 경험 있는 훌륭한 엄홍길 대장과 같은 길잡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누구든지 인생의 산정을 오르려고 하는 자는 어서 빨리 승리제단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김중천 기자

2014년 전반기 좋은기사상



박명하 님이 상금을 받고 있다

2014년 전반기 좋은기사상에 박명하 님의 입문수기가 뽑혔다. 승리신문 편집부에서는 좋은기사상 후보로 올라온 김혜선 권사의 입문수기, 박명하 님의 입문수기, 서보복 승사의 입문수기 중 최다 추천을 받은 박명하 님의 입문수기를 좋은기사상으로 뽑았다.

2014. 전반기 좋은기사상 후보로 오른 김혜선 권사의 입문수기도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박명하 님의 기사는 타종교를 신앙하다가 승리제단에 입문한 후 구도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중산도 신앙의 허구성은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어 독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좋은기사상으로 뽑히면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새인간 / 김만열 탈북기 승리신문 최초 취재 6만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신순이 사진부장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